

연구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최윤미(崔允美)*

김민성(金玟成)**

홍윤경(洪允暻)***

남창우(南昌祐)****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대학원 수준에서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과 연구역량이 발휘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의 연구중심대학 중의 하나인 A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한 표적집단면접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연구원 및 교수 총 31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교육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인식과 연구 수행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역량의 구성요소는 집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글쓰기와 의사소통능력은 세 집단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연구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연구역량을 이해하는 방식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구성요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원 교육에서 연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역량요소를 제시하고, 나아가 연구역량 요소들이 실제 연구 활동에서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드러냄으로써 연구역량 개발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연구역량, 교육연구, 교육연구역량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

**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

I. 서론

‘지식기반사회’라는 최근 사회의 맥락은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치창출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대학교육에 요구하고 있다(박민정, 2008; 이돈희, 2003). 지식을 탐구하고 생산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면(LaPidus, 1997), 대학원 교육은 바로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역량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가의 문제는 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운영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대학원 교육이 갖는 이러한 사회적 의미나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개발되어야 할 연구역량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논의는 아직 일천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연구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연구와 ‘실제(practice)’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간호학, 의학, 임상 등의 분야이고, 이마저도 학문적인 논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며,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역량을 열거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Burke et al., 2005; Fred Hutchinson Cancer Center, 2009;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Foundation, 1999). 이들 분야에서는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실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구역량의 구성요소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뿐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실제의 사례에 응용하여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연구역량이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학문분야의 맥락 속에서 개별 연구역량이 내포하는 의미가 탐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든 학문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구역량의 요소들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작업은 결국 개별 학문의 문화나 전통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 과정과 연구 방법 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역량연구는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보이는 수행을 분석하여, 그러한 수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식, 기술, 태도 등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해왔다(Sandberg, 2000). 역량의 요소 혹은 특성 중심의 접근방식은 역량의 구성요소들이 모든 맥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는 ‘글쓰기 능력’은 연구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역량이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경험이 축적된 중견연구자가 생각하는 연구의 의미 혹은 연구에 필요한 여러 능력들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연구의 맥락에서 글쓰기가 갖는 의미는 학문분야, 개인의 수준, 관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개인이 ‘글쓰기’에 부여하는 의미는 연구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는 역량이라 할지라도, 연구과정에서 역량이 인식되고 작동되는 방식은 연구자의 수행경험이나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역량이 인식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연구자들의 연구경험과 발달수준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연구중심대학 교육학과 대학원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연구역량의 요소와 그에 대해 개별 구성원이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학원이라는 맥락에서 연구 역량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뿐 아니라, 연구경험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역량요소가 연구과정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도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의미

역량이라는 개념이 학문사회에서 사용되는 용례에 비추어볼 때, 연구역량은 연구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윤정일 외, 2007). 이때, ‘연구’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는 그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연구(研究, research)’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알아냄’(민중서림, 2009),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에 관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하는 일’로 정의된다(Sinclair, 1987). 이때, 앎의 대상이 되는 진리나 사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립한 것을 ‘학문(學問)’이라고 일컬으며, 연구는 학문을 하는 행위의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학문을 한다’라고 말하는가? 임수무 등(2007)은 ‘학문(學問)’의 핵심은 문제거리,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행위라고 강조하였고,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학문적 행위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민중서림, 2009).

연구는 학문을 하는 여러 행위 중 특히 관심이 있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때, 탐색의 과정은 해당 학문분야에서 합의되고 정립되어 온 연구방법에 의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평가되며, 연구 질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가 탐구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리나 사실에 도달하였는지는 연구방법론의 과학성과 논리성, 체계성의 정도만큼 받아들여진다. Pintrich(2003)는 “제대로 진행된 연구(well-conducted investigation)”에서 얻

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추론된 주장들이나 그러한 주장들을 기초로 구성된 연구자의 관점들이 ‘과학적 연구’를 구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성부분이라고 말하였다. 이때 “제대로 진행된 연구”는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해당 학문분야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인 교육학 분야는 그 고유한 탐구대상인 교육활동의 특성 때문에 ‘실천지향적’이면서도 ‘이론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은 지식과 기술, 신념과 가치 등을 전수하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이 활동의 탁월한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원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실재를 개선하는 원리를 산출해야하는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학은 실천지향적인 학문분야이다(이돈희, 2003).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육학은 교육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학문과 다를 바 없이 이론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학의 하위 영역에 따라 연구의 중심점이 이론에 있는가, 실제에 있는가가 달라지지만, 교육의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체계를 갖추으로써 교육학적 안목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안중, 1997).

연구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연구역량이 무엇인지 가능하게 해준다. 즉, 연구자가 연구를 착수하게 하는 점화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연구의 전 과정에 지적호기심과 열정을 불러 넣어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해당 학문적 전통을 통해 축적된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 그것을 실제로 연구과정에서 타당하게 적용하고 연구결과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교육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고유하게 요구되는 연구역량(예: 교육학적 안목) 등이 그것이다.

2. 연구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역량은 학문공동체 속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나 비공식적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학문공동체 속에서 지도교수나 선배 연구자들과의 경험을 통해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연구수행능력을 명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요소나 능력으로 구분해내어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의 경우 축적된 연구와 지식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재가 존재하는 의학이나 간호학, 임상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Fred Hutchinson 암연구소(2009)는 성공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을 ‘과학적 지식’(과학적 질문을 정의하는 분석적 접근, 연구설계, 광범위한 지식기반, 데이터에 대한 해석과 분석), ‘연구 기법 개발’(실험지식과 안전, 실험설계, 데이터분석과 해석, 문헌탐색 및 비판적 평가, 동료검토과정), ‘의사소통능력’(글쓰기, 말하기, 대인관계 기술, 네트워킹), ‘리더십

및 관리 기술'(비전과 목표의 설정, 책임감부여, 동기부여, 역할모델, 다양한 집단과의 협동 능력, 갈등해결, 시간관리 등), '책임있는 연구수행' 등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박현정과 신택수(2007)가 대학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역량을 규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우선 대학원 과정에서 개발되어야 할 핵심역량(기본역량, 교수역량, 국제화역량, 학문공동체 참여역량, 자기관리역량, 지식역량, 연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형태의 지표로 개발하였다. 여기서 연구역량은 대학원생의 핵심역량 중의 중핵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그 하위 요소로 연구문제제기, 학문적 글쓰기, 창의적 연구 질문 생성,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자료 생산, 수집 및 분석이 있다. 이러한 역량의 목록들은 성공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망라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Burke 등(2005)은 간호학 분야의 연구역량을 발달단계에 따라 구체화하였다. 간호학이라는 학문분야의 특성상 '간호'라는 실천과 떨어질 수 없는 연구의 특성을 살려서 간호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박사후 연구생들에게 필요한 연구역량을 명시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간호실천'(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과 연계시켰다. 즉, 아래 <표 1>과 같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임상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들을 학부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 연구원 등의 발달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1> 발달 단계에 따른 연구역량의 예

수준	역량
학부 1학년	적절하고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기초적 역량 습득
2학년	주어진 임상문제에 적절한 연구결과나 정보를 탐색, 수집하는 역량
3학년	임상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역량 적절한 임상문제를 선정하는 역량
4학년	연구보고서,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논문을 읽고 평가하기, 결과를 종합하고 그것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역량
석사과정	연구논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실제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는 역량 처치 안내 사항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역량
박사과정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학업지도위원의 지도를 통해 독립적, 독창적인 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역량 구체적인 주제별로 연구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안된 연구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박사후 연구원	문헌을 읽고 비판적으로 평가, 종합하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룰 때 더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실제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 독창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자신이 얻은 연구결과나 축적한 지식을 알리는 역량

<표 1>은 연구와 실체가 밀접하게 연계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역량이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며 교육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연구역량을 발달단계에 따라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은, 역량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의 요소들을 열거하는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발달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직업치료재단(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Foundation, 1999) 역시 연구와 관련된 여러 역할별(연구의 소비자, 연구보조원, 신입연구원, 전문임상가, 행정가, 연구자, 학자)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연구역량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소비자나 임상가, 행정가 등에 대해서는 직업치료분야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목록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자의 경우, 연구보조원, 초보 연구자, 연구자, 저명 학자 등 발달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화하였다. 저명학자의 수준에서는 '의미있는 주제를 다루는 일련의 연구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량', '주요 연구수주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역량', '저명 학회지에 투고하고 해당 분야의 이론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연구보조원들을 감독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협력하는 역량' 등이 요구되었고 초보 연구자에게는 숙련된 연구자들의 조언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 논문출판과 관련한 기초 지식 등이 연구의 입문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역량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연구나 연구소의 보고서 등은 이처럼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해당 발달단계에서 기대되는 연구역량의 수준 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연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역량을 개별적인 구성요소 혹은 속성(attributes)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러한 표현 방식의 이면에는 개별적인 역량의 요소나 속성들을 갖추면 연구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Sandberg(2000)는 역량에 대한 요소별 접근은 각각의 요소나 속성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구체적인 맥락이나 실제 상황에 따라, 혹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각각의 구성요소가 관계 맺는 방식이나 중요도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속성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가 엔진을 조립하는 기술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행의 우수성은 역량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보다는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엔진을 조립하는 일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각각의 세부 기술이나 능력들의 의미나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Sanberg는 실제 상황에서 역량이 발휘되고 개발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열거하는 방식보다, 개개인이 과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하나의 수행으로 표현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역량에 대한 “해석적 접근 (interpretative approach)”이라고 부르고 역량이 가동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역량을 일련의 역량요소의 집합으로 규정하기보다, 개개인의 연구경험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와 작동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경험과 수준이 서로 다른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들이 연구역량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연구역량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추기를 원하는 연구역량과 연구수행 경험(요구, 어려움, 성취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역량에 대한 규정방식과 그 구성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학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역량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연구역량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교육학과 대학원 재학생, 연구원, 교수 집단이 연구역량을 어떻게 규정하고, 각 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역량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경험의 정도나 발달단계를 달리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입문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중진 교수들을 목적표집하였다.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이란 질적 연구에서 탐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가장 직접적이고 밀도 있게 체험한 연구대상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을 말한다(성태제, 시기자, 2006).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A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연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석사과정 재학생,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자신만의 연구 결과물을 갖고 있으면서 최소 2학기 이상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재학생,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 중 최소한 한 과정을 이수한 연구자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 중인 연구원, 그리고 학과 교수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31명이었고,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단위: 명)

		교수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합계
성별	남자	6	1	2	3	12
	여자	1	3	8	7	19
	소계	7	4	10	10	31
세부 전공	교육철학	0	2	1	1	4
	교육과정	0	0	1	1	2
	교육심리	1	0	1	1	3
	교육사회	0	0	1	0	1
	교육인류	1	0	0	0	1
	측정평가	1	0	1	1	3
	교육공학	1	1	2	2	6
	교육상담	2	0	1	1	4
	교육행정	0	1	1	1	3
	평생교육	1	0	1	2	4
	소계	7	4	10	10	31

2. 면담

이 연구에서는 연구역량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그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탐색하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표집하여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연구역량을 어떻게 규정하고 중요한 연구역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이유는 사전에 작성한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지만, 제보자의 답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등의 융통성을 갖기 때문이었다.

면담은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은 집단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연구원과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표적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면담자와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연구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심도 있게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교수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반면,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하여 표적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제보를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성찰할 수 있는(Krueger & Casey, 2000) 표적집단면담법을 활용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그들의 의견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면담 중간에 설명을 하거나 피면담자의 견해를 해석하는 방식을 지양하려 노력하였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고 피면담자의 의견이 질문지의 순서대로 진행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질문 항목 간 이동과 순서의 변동이 있었다.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은 참여자의 연구경험이나 역할에 따라 달리 구성되었다. 먼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교육현상 연구에 필요한 공통핵심 역량(10문항)과 전공특수역량(14문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현상을 탐구하는 교육학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별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공에서 전공특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A대학교 출신의 연구원과의 면담에서는 연구자로서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역량(9문항), 모교인 A대학교 교육학과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6문항), 교육학과에 필요한 역량(2문항)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예컨대, “교육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대학교 교육학과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의 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대학원 석·박사과정생과의 면담은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 해당 세부전공 교육과정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연구 수행의 경험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긍정적인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교육연구역량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세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항이었다.

제보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 면담 내용 전체를 녹취하였으며, 면담 중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 중심으로 기록을 하였다. 면담은 약 90~120분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1인/1집단별로 1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제보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답변이 질문의 방향을 벗어날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질적연구에서 자료분석이란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하여 누락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유형을 찾아 관련을 맺어 종합화 하는 것을 말한다(김윤옥 외, 1996).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이용숙, 김영천, 1998)를 따라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면담에서 녹음된 자료를 문서로 녹취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녹취된 자료를 주제별로 약호화(coding)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별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이 연구역량에 관련된 특정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차용하여 명명하거나 연구자가 창안한 주제 개념을 활용하여 명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역량을 분석하는 네 가지 주제의 축, 즉 1) 연구역량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2) 교육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3) 연구역량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4) 발달 단계별로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은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의 특성과, 그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의 양상이었다.

전사와 주제별 약호화의 개발과 적용의 과정이 완료된 후 분석의 세 번째 단계인 연구역량의 인식의 양상을 분석하는 주제 생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주제와 의미의 생성은 약호들을 출현 빈도수에 따라서 계산하여 그 서열을 정하는 방법, 규칙적인 패턴을 찾는 방법, 동일한 현상을 한 개의 새로운 단위로 묶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연구역량의 구성요소와 그 빈도를 추출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해석의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를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면담, 특히 대상원생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담에서는 연구진 4인 중 2인이 참여하여 면담장소에서 일어나는 대학원생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관찰하였다. 면담내용의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연구자 간 불일치되는 요소들에 대해 전체 연구진 4인이 합의할 때 그 요소들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연구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제 생성 작업 단계에서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체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텍스트를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쳐 주제를 생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네 명의 연구자가 각기 주제를 생성한 뒤 도출된 주제를 동료 연구자와 비교하고 전체가 모여 토론하여 합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면담에서 녹취된 자료를 주제별로 약호화하고 의미를 범주화하는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참여자가 속한 맥락과 연결시키는 방법(Denzin, 1989)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의도가 맥락에 맞게 명확히 드러나도록 면담 자료를 구체화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원과 교수들의 면담 자료는 연구진이 모두 공유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자간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

쳤다. 또한, 교육연구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진 이외의 교육학 박사 2인이 참여하는 동료보고회(peer debriefing session)를 실시하여(Lincoln & Guba, 1985), 교육연구역량 도출 결과와 해석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경험과 수준이 서로 다른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들이 연구역량을 규정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역량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핵심적인 연구역량의 구성요소를 달리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역량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연구와 연구역량에 대하여 이해하는 양상에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른 집단과는 달리 석사과정생의 경우, 하나의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연구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연구역량으로 언급된 요소들에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들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동일한 연구역량의 요소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나 역할의 측면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 예로, 교수와 연구원 집단(졸업 후 5년 이내)은 글쓰기 능력을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언급하였다. 이들에게 글쓰기 능력은 단순한 문장작성 기술이 아니라, 관심 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대학원생들은 연구의 경험을 통해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을 ‘글을 잘 쓰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였다.

아래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집단별로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역량의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 교육연구역량의 구성요소

교육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집단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석사과정생의 반응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석사과정생의 경우, 연구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기에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역량에 대해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박사과정생의 경우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도출한 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에 언급된 역량요소의 빈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3>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교육연구역량의 구성요소

교수(7명)		연구원(4명)		박사과정생
역량요소	빈도	역량요소	빈도	역량요소
교육현상에 대한 안목	6	글쓰기	2	의사소통
문제의식	5	문제의식	1	팀워크
글쓰기	4	의사소통	1	간학문적 관점
의사소통	3	창의력	1	글쓰기
창의력	3	팀워크	1	가치관 및 태도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요한 연구역량의 요소였다.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글을 통해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연구자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팀워크역량’은 연구원과 박사과정생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요소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박사과정생들은 동료 연구원들이나 지도교수 혹은 선후배 과정생들과의 공동연구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팀워크역량’은 자신들이 처한 맥락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연구역량이었다. 교수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다른 집단보다 ‘교육현상에 대한 안목’과 ‘문제의식’을 특별한 강조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언급한 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2.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

앞서 제시한 연구역량의 구성요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언급된 요소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역량의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연구경험과 연구역량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석사과정 재학생

(1) ‘지켜볼 수 있는 기회’, ‘연구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

석사과정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겪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교육 없이 연구과정에 바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가 ‘무슨 연구인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선배나 교수님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였다.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연구 프로젝트에 곧바로 투입이 되었어요. 무슨 연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연구인지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었고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연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연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또 업적을 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 선배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구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절실했습니다.

사실 훌륭한 연구자들을 보면 어떠한 요소들의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에게는 한참 먼 훗날의 일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 보다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도교수님이나 선후배 혹은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함께 연구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연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사과정 학생들 중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름이 실린 논문이 게재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어렵듯하게나마 연구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석사과정생의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연구에 대한 ‘감’을 잡고 연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였다.

석사과정 초보자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가 되고 나니 힘들었던 기억이 싹 잊혀졌습니다. 한번 해 보니 자신감이 생겼고,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어렵듯하지만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너무 어려웠지만, 지도교수님 옆에 제 이름이 나란히 기재된 논문을 보니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논문을 쓰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런 순간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면서 지금

도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2) ‘연구가 되게’ 하는 역량

단독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석사과정생들에게 연구는 공동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동료와 선배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연구가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의식’, ‘연구방법론’, ‘영어능력’ 등의 역량보다는 ‘의사소통’, ‘팀워크’, ‘문제해결’과 탐구를 위한 ‘협력적인 태도’ 등에 더 중점을 두어 연구에 필요한 능력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들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잘 지내면서 연구가 잘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나 프로젝트팀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하나 있으면 연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알아서 열심히 해야 연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석사과정 학생들은 박사과정의 선배와 연구에 함께 참여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비교적 ‘편하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교수님 연구에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면 정말 긴장이 많이 되요.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게 되요. 그런데 가까운 박사과정 선배들과 연구를 하면 그래도 좀 편하니까, 어렵더라도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석사과정 학생들과 짝을 지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경험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박사과정의 코칭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생들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점들은, 연구역량을 실제로 발휘하기 힘든 석사과정의 학생의 경우,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고 ‘지도교수 및 선배의 경험과 지식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연구역량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석사과정생들은 진행되는 연구의 의미와 그에 대한 연구배경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선배와 지도교수의 연구과정을 지켜보며 연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선배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그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점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석사과정생들은 공동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한 연구를 ‘되게 만드는’ 의사소통능력, 협력, 팀워크능력 등을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석사과정생들이 경험하는 연구과정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역량임과 동시에 이들

수준의 연구경험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위에서 언급한 ‘협력적’ 역량임을 암시하고 있다.

2) 박사과정 재학생

(1) ‘지도교수의 문제의식’

이 연구에 참여했던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최소 1~2회 이상 지도교수 혹은 동료들과 함께 연구논문을 작성해서 학술지에 게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의 대부분은 지도교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완성된 연구’로 만들어 간 과정이었다. 여기서 박사과정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참여하는 연구가 ‘자신의 연구’가 아니라 ‘지도교수의 연구’라고 느껴진다는 점이다. 박사과정생들은 자신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문제의식을 마치 자신의 문제의식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제가 참여하는 연구는 제가 아니라 지도교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글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내 자신의 관점과 연구문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연구가 아니라 지도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제 박사논문을 쓸 시점이 되고 보니, 과연 내가 연구하고 싶어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연구들은 제가 궁금해서 시작한 연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시해 준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연구문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논문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역량이라는 말은 지도교수로부터 들어왔으나, 박사과정생들이 주로 경험하는 연구는 지도교수 혹은 선배 연구자들이 제기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박사과정생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자기만의 문제의식’과 ‘비판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2) 의사소통 역량: ‘서로의 지식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역량

석사과정생들과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학생들 역시 지도교수나 다른 동료, 후배들과 팀을 이

루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연구역량이며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기까지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동연구의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면서 교육현상에 대한 서로의 지식과 이해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연구의 전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다.

박사과정 중에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학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보다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접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섭렵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이외에도 수업을 통해 다른 박사과정 동료들과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경우, 지도교수로부터 배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학습, 즉 좀 더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탐색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 생각에 박사과정 중에는 [수업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력을 통해 학문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배우고, 연구하는 방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배우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 같이,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만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연구역량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만의 안목과 문제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이들은 박사과정 동료들과의 연구가 어찌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팀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통해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사소통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연구원

(1)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연구는 주로 실제 교육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인 대안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육현상에 대한 경험과 자신만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교육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국가연구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학생일 때보다 교육 현장에 더 가까워졌고,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대학원 때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대학원때는 주어진 과제를 하고 주어진 연구 과제를 해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현상과 교육현장을 바라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교육학을 한 사람이라면 교육현장과 교육활동들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현상에 관한 폭넓은 시각, 문제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지 각 세부 전공 영역에서 구체화해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순수 학문 연구라기보다는 연구결과를 응용하고 활용해서 직접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인데,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대하여 좀 알 필요가 있더라구요. 사실 학위할 때 그런 지식을 좀 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2) 의사소통역량: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역량

동료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중요한 역량이었다.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팀을 이루어 하기 때문에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워크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나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팀워크를 이루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은 이미 대학원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선배와 팀을 이루어 연구를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우리 과의 강점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밀한 의사소통, 대화, 그리고 상호 협력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맡겨진 임무만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거르고 수렴하고 빠진 것 넣고 부족한 것 채우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산출물이 된다는 것을 대학원 재학 중에 경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원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연구역량이 바로 ‘의사소통역량’, ‘팀워크역량’임을 지적하였다. 유학을 갈 경우 국내에서 학위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수 있지만,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나 프로젝트를 하는 등의 실제적인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내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의사소통역량’과 ‘팀워크역량’은 국내의 대학원 교육과정이 길러낼 수 있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경계 허물기: 융합의 경험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잦은 연구원들에게는 교육학 분야 내의 다양한 분과학문영역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경험이 연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었다.

학문도 서로 융합하고 과학에서도 통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업만이 아니라 연구방법이 다른 선후배 또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하나의 연구 경험을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세인데,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모여서 원활한 협력 속에서 훌륭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서로 간의 합의된 연구물이 더 질적으로 우수한 것 같아요.

더불어 하나의 교육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전공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공유하는 장은 세부 전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관해서 각 세부 전공에서 그 나름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보편적인 질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이 많이 제공이 되고, 그런 것이 대학원 수업 속에 하나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물 안에 갇혀 있던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었는지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맥락(교육실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 대안 수립,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연구역량은, 교육현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통해 '자기 나름의 관점'을 정립하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학문분야와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량요소라는 점도 부각되었다.

4) 교수

(1) '나만의' 문제의식

교육현상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과 시각’을 정립하는 것은 연구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교수집단이 가장 강조한 요소였다. 교수들은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진술하면서, 교육현상에 대한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교육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역량이 바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폭넓은 접근을 하는 것,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해 보는 것 등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낮아져야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문제의식이 없으면 이 연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누구나 다 아는 얘기로 채우는 굉장히 지루한 논문이 되겠죠. 상큼한 문제 하나 있으면 그 연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로운 연구를 또 하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집단은 ‘글쓰기 역량’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개별적이고 분리된 능력으로 이해하기보다, 교육현상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융화될 때 더불어 길러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2) 끊임없는 ‘의도적 연습’

교수집단들은 연구역량으로 언급된 요소들이 실제로 개발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아직 연구의 경험도 부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연습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연구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하였다.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연구자가 되는 초석이 됩니다. 우선은 게을러서는 안 되겠고, 열심히 읽지 않고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좀 비판적이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답이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해결책보다 몇 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연구문제를 가져오면 저는 이게 정말 학생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 집니다. 자기가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로 연구문제를 써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함께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길을 찾고 하는 과정이 바로 연구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교수집단에게 있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에 대한 '의도적인 노력과 연습'은 교육학의 발전을 위하여 타학문 분야로 시야를 확장하고 그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 안주하기 쉬운 학문적 풍토 속에서 자신의 관심영역을 타학문에까지 확장하고 그 분야의 성과를 자신의 연구에 반영하는 것은 연구자가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좋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연구인데, 그 해결방법을 교육학 안에서는 절대로 못 찾아요. 다른 사회과학분야, 예를 들어 저는 통계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다른 분야에서 하는 연구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걸로 제 연구가 줄줄이 나와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찾으면 운 좋은 거고, 못 찾더라도 계속 찾아보면 언젠가는 찾지 않겠어요.

(3)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의 강점: 교육현상의 이해, 협력연구의 기회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수집단에서도 국내 교육학과 대학원이 가질 수 있는 강점으로, 국내 교육정책 및 동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과 지도교수, 동료 혹은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력연구의 기회를 풍부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교수집단은 팀워크 및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향후 성공적인 교육연구자가 되는데 중요한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우리 대학원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교육정책 및 정치경제학적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이고, 다른 하나는 팀워크역량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원생들이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할 때 면접을 하러 가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최근 교육계의 이슈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기대만큼 잘 못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외국에 나가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했으면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유학을 가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언어문제를 벗어나 워낙 숙제도 많고 들을 수업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하면 코스웍에 대한 부담은 유학생보다 덜한 대신, 연구를 해 볼 기회가 많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소위 말하는 팀워크역량이 길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구소든 회사든 직장에 가게 되면 대학원 과정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수집단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역량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수한 연구가 갖추어야 할 측면들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자신만의 안목’과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꼽았으며, 나아가 자신의 분야에서만 연구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다른 학문분야에까지 관심을 확장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량들은 해당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를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연구자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한 동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집단은 국내 대학원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장점(교육현상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역량, 팀워크역량)을 지적하면서, 국내 학자들이 갖추어야 할 연구역량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연구 수행 경험과 수준에 따라 연구역량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역량의 주요 요소들은 교수, 연구원 그리고 대학원 석박사과정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이나 자신들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제시하였다. 석사과정의 학생의 경우, ‘연구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연구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연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역량’과 ‘팀워크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도교수나 다른 선배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석사과정 학생들처럼 주어진 공동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 이를테면, ‘의사소통역량’과 ‘팀워크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정책연구라는 연구의 성격에 비추어 ‘교육현상에 대한 이해’, ‘자신만의 문제의식’, ‘팀워크역량’을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언급하였다. 교수집단은 우수한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서,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즉, ‘문제의식’, ‘타학문분야에 대한 관심의 확장’,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의 경험이나 연구역량의 발달 수준에 따라 연구역량을 이해하고 각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연구역량이 구체적인 연구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방식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역량에 대한 Sandberg(2000)의 ‘해석

적 접근'에서 밝혀진 것처럼,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실제 수행에서 역량 구성요소의 관계와 작동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식', '글쓰기 역량', '의사소통역량', '팀웍역량'이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각각에 대해 참여자 집단의 경험과 이해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수집단과 연구원 집단이 이해하는 정도와 대학원생들이 이해하는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아무리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대학원생들은 교수나 연구원 집단이 의미하는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역량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대부분의 역량연구는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수행을 분석하여 그 구성요소들을 역량 목록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다면 누구나 다 최고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넣는다. 그리고 연구역량의 구성요소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 누구나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역량요소들을 교육프로그램에 도입할 때, 학습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역량의 요소들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막 해당 분야에 입문한 초보자들은 최고 수준의 역량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고, 그것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Burke 등(2005)이 제시한 것처럼,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연구역량을 명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더 의미있는 방식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역량의 발달 수준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연구역량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구역량은 개인의 수준에서 갖출 수 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연구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조건이나 수행하는 연구의 성격, 그들이 속한 사회적 관계의 속성에 따라 그 의미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육현상에 대한 정책대안에 관하여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연구원이나, 학자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교수집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역량과, 자신에게 '주어진' 연구 과제를 '해 낼' 것을 요구받는 대학원들에게 절박한 연구역량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의 상황과 맥락과 요구되는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역량의 요소들의 의미와 기능을 해석하는 것이 실제 수행과정에서 발휘되는 구체적인 역량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역량의 요소들이 구체적인 수행 상황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을 드러내고 연구의 경험이나 발달 수준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히, 대학원생의 연구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하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인 A대학교의 구체적인 맥락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A대학교에서 학생자와 교수자의 관계 양상, 해당 학과의 인재상, 수업 및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역량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A대학교의 맥락과 떨어져서는 그 의미가 풍부하게 드러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맥락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연구역량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밝혀졌으나, 여전히 역량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우수 수행자의 차별화된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뛰어난 연구자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밝혀졌을 때, 그러한 역량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의 경험이나 인식의 차이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안중(1997). 사범대학 교직과목의 성격과 운영방안. 전국대학 교육학과 및 교직과 학과장 협의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김윤옥 외 (1996).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 김현주(2008). 플라이버그의 사회과학론에 비추어 본 교육연구의 철학적 차원. *교육철학*, 43, 7-29.
- 민중서림(2009). *옛센스 국어사전*. 파주: 민중서림.
- 박민정(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4), 173-197.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2003). *가르침에 대한 성찰*. 서울: 박영률 출판사.
- 성태제, 시기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박현정, 신택수(2007). 고등교육기관 핵심역량의 구조화 및 경쟁력 지표의 개발과 적용: S대학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21-53.
- 유재봉(2003). 한국교육학의 자생성에 관한 논쟁 검토. *한국교육사학*, 25(2), 29-51.
- 윤경원, 엄재은(2009). 다문화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9(3), 101-124.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이돈희(2003). *세기적 전환과 교육학적 성찰*.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혁규(2009).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방법. *교육비평*, 196-213.
- 임수무 외(2007). *공부론*. 서울: 예문서원.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Foundation (1999). *Research Competencies for Occupational Therapy*. Retrieved from <http://www.aotf.org/ResourcesWLWLibrary/ResearchCompetenciesforOccupationalTherapy.aspx>
-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Burke, L. E., Schlenk, E. A., Sereika, S. M., Cohen, S. M., Happ, M. B., & Dorman, J. S. (2005). Developing research competence to support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1(6), 358-363.
- Denzin, N. K. (1989). *Interpretive interactionism*. Newbury Park, CA: Sage.

- Feast, V. (2001). Student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and value of a graduate quality framework in a tertiary environment.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2(4), 144-158.
-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2009). Core competencies of a successful scientist. Retrieved from http://www.fhcrc.org/science/education/grad_postdoc/oscd/core_competencies.html. 2009/9/19.
- Hirst, P. H. (1983). Educational theory. In P. H. Hirst (Ed.), *Educational theory and its foundation disciplines*. Routledge & Kegan Paul.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Pidus, J. B. (1997). *Doctoral education: Preparing for the future*. Council of Graduate Schools. Washington, D. C.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yer, R. (2000). What is the place of science in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29(6), 38-39.
- Mayer, R. (2001). Revisiting the assault on science: The case for evidence-based reasoning in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30(7), 29-30.
- Phillips, D., & Burbules, N. (2000). *Postpositivism and educational research*.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Pintrich, P. R. (2003). A motivational science perspective on the role of student motivation in learning and teaching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4), 667-686.
- Sandberg, J. (2000). Understanding human competence at work: An interpretative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1), 9-25.
- Sinclair, J. (Eds.) (1987).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London: Harpercollins.

- * 논문접수 2010년 2월 1일 / 1차 심사 2010년 3월 15일 / 2차 심사 2010년 4월 10일 / 게재승인 2010년 5월 3일
- * 최윤미: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비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에서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역량개발, 팀기반 학습, 리더십이다.
- * 김민성: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심리, 교사의 배려, 교사-학생 관계, 정서 등이다.
- * 홍윤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철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BK 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도덕교육, 고대 서양의 교육이론, 교사교육이다.
- * 남창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공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Texas A&M University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협력학습, m-learning, 설계기반 연구방법론이다.
- * e-mail: minseong@chosun.ac.kr

Abstract

Understanding Research Competence at Graduate Level: Different Conceptions from Graduate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Yoonmi Choi

Minseong Kim

Yunkyung Hong

Chang Woo Na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ways graduate students, researchers, and professors characterize research competences in the context of graduate education. This study tried to provide a detailed description of actual demands, difficulties, and even accomplishments researchers experienced during the course of education research.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four graduates of the department and seven professors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Korea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students in the graduate program were executed twice. Unlike the existing component-based approach, this study adopted an interpretative and context-based approach to understanding research competence. Findings suggest that the meaning of education research competence differ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Rather than a specific set of attributes of research competence, context and the meaning of education research played key role in understanding research competence. Based on these analyse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research competence were suggested.

Key words: research competence, education research, education research competence